



전대미문의 잔학한 일제의 고문만행



김삼웅 _ 독립기념관 관장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면서 공공연히 떠든 말 가운데 하나는 “조선 사람과 명태는 두들겨패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초대 조선총독은 부임 제1성으로 “조선인은 일본법규에 복종하든가 죽든가 그중 택일해야 한다”라고 협박하면서 혹독한 고문·구타의 무단통치를 자행했다. 일제의 악행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레니가 “조선에서는 짜리즘의 모든 방식, 최신의 모든 기술적 진보와 순(純) 아시아적 고문제도, 전대미문의 잔학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할 지경이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에드워드 스윙이란 미국인은 일본인들의 만행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4월 18일 윌슨 대통령에게 진정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일본인들의 무단통치가 계속되고 있고,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무단통치는 악랄했으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독립운동을 일본 지휘군과 군인들은 마치 무법천지에서 날뛰듯이 지극히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썼다.

이 진정서는 특히 일본인들의 조선 여성에 대한 만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찰과 군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체포해서 잔인하게 구타하고 있다. 열 살밖에 안된 어린 소녀와 부녀자들 그리고 여학생들조차도 육체적 고통과 괴로움 뿐만 아니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스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은 단지 조국의 평화스런 독립을 염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일본이 조약까지 맺으면서 약속했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조선을 병탄시킨 뒤에 가장 먼저 설치한 기구가 조선총독부 산하의 헌병경찰이었다. 1910년 9월 10일 칙령으로 「조선주차헌병조례」를 발표하여 헌병이 군사경찰과 일반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데라우치는 조선을 지배할 조선총독부를 헌병경찰이 뒷받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데라우치는 의병학살 과정에서 창설된 「소지역 완전 군사점령체제」이던 헌병경찰제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전대미문의 무단통치체제를 구축했다. 데라우치는 경성(서울)을 비롯, 광주·대구·평양 등 3개 지역에 77개의 헌병부대와 전국 562개소의 파견소를 두고, 일본인 헌병 1명에 한국인 보조원 3명씩을 붙여서 이들로 하여금 의병과 독립운동가 등 소위 ‘불령선인’을 염탐·구속하는데 활용했다.

조선총독부는 또 헌병대와 함께 중앙의 경찰국과 각도의 경찰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254개소, 22개처의 주재소, 242개처의 파출소를 두고 2만 1천여 명의 순사를 배치시켜 물샐틈 없는 감시체제를 갖췄다. 일제식민통치 기간 동안 조선인들이 당한 고문은 주로 헌병경찰(3·1운동 뒤에는 보통경찰로 명칭 변경)에 의해서였다. 이들



해전고문

(코와 입에 고춧가루 물을 부어 폐로 들어가게 하는 고문)



주리틀기 고문

은 독립운동가나 사회운동가는 말할 것도 없고, 민·형사의 소송관계자나 걸핏하면 무고한 사람까지도 붙잡아다가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다.

총독부는 태형제가 실시된 7년 제인 1917년 1월 24일 경무총감부 훈령으로 “구속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그 사망자의 성명 본적 주소 직업 사망 연 월 일 장소 등을 본적지 부윤(府尹) 면장에게 통지하라”고 까지 하였으니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형정과 1,272개의 헌병대, 경찰서가 벌여놓은 태형(고문)으로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억울하게 죽어갔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제의 헌병·경찰·군인·관리 등 총독부 수족들의 조선인에 대한 고문에는 참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갖은 악형이 총동원되었다.

대표적인 고문의 유형에는 손·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코에 물 붓기, 코와 입으로 고춧가루 물붓기, 비너뽑기, 통닭구이, 무릎에 몽둥이를 끼우고 교대로 뛰어내리기,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서 비행기 태우기, 고무호스로 입에 물 넣기, 손톱 발톱 밑에 바늘찌르기, 칠성판에 묶기, 관 속에 넣고 못질하기, 생매장하여 위협주기, 전기고문, 성고문, 끓는 물 속에 집어넣기... 온갖 악독한 방법이 총동원되었다.

일제 수사관들이 고문할 때 즐겨 사용한 기구의 하나

로 ‘쇠줄몽둥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을 우신봉(牛腎棒, 황소의 생식기를 뽑아 말린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매질을 하거나 물에 불려서 여성 음부에 삽입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일제의 고문의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악랄한 것이 이른바 성고문이었다. 정절을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당시 여성들의 성고문은 그야말로 죽음 이상의 고통이었다. 비록 강간에 의해 실절(失節)을 하였더라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까지 하던 시절이었던 만큼 여성들이 느낀 모욕감은 형용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성고문을 당했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 착안한 일제 관헌들은 걸핏하면 애국운동에 나선 여성들을 붙잡아다가 성고문을 벌였다. 성고문에는 강간·검탈·윤간도 예사였다. 그러나 성격상 성고문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나와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일제의 잔학한 탄압 중에서 고문에 못지않은 것이 사상전향제다. 군국주의로 치닫던 일제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우리 독립운동을 포함한 반체제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키면서 만든 것이 사상전향제였다. 육체에 가한 것이 고문이었다면 정신을 엮어낸 것은 이 사상전향 제도였다. ◆